

삼위일체 주일 / 총기폭력예방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TRINITY SUNDAY
GUN VIOLENCE PREVENTION SUNDAY

주후 2022년 6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통일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별지 참조)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4:1-17	채희원 집사
찬 양 Anthem	“의지하고 순종하면”	찬양대
설 교 Sermon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What Is That in Your Han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광야를 지나며”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통일 93)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에 문제와 갈등이 점점 더해지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진정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며,

삶이 뒷받침되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3-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지팡이 니이다”(개역개정 **출4:2**)

“Then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 staff," he replied.”
(NIV **Exodus 4: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12 (주일)	6/13 (월)	6/14 (화)	6/15 (수)	6/16 (목)	6/17 (금)	6/18 (토)
	신17	신18	신19	신20	신21	신22	신23
본문	시104	시105	시106	시107	시108,109	시110,111	시112,113
	사44	사45	사46	사47	사48	사49	사50
	계14	계15	계16	계17	계18	계19	계2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15수 오후7:30)	“하나님의 부르심” (삼상3:1-20) – 이성우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6/18토 오전6:30)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시85:1-13)

지난 주일(6/5)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5)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3-22)

우리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름과 관련된 여러가지 다양한 일화가 나옵니다. (가령)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래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중간에) 이름이 바뀌게 된 경우라든지...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천사를 통해 (직접) 이름을 계시 받게 된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첫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이고, 2)둘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며, 3)셋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첫번째 목적이기도 했고, 그들에게 장래에 주실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We have no higher calling than to offer the worship that belongs to God day by day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예배로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